

[SBS] 中 쑤저우에 26 만㎡ 규모 녹색 코리아타운 조성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총면적 26 만㎡의 '녹색 코리아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주)CKT가 한중 양국 경제계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업의 공개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CKT는 한중 수교 18주년(8월 23일)을 맞아 한중 녹색기업의 동반발전에 토대 역할을 할 '쑤저우 코리아 타운' 건설을 포함해 한중 기업들의 녹색협력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중 녹색기업의 동반상승'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CKT와 칭화(靑華)대학 기업집단의 칭윈(靑雲)창투, 서울중국학중심(SCCS, 양필승)이 공동주최하는 이 세미나에는 송권 칭화대학기금 부이사장과 예동 칭윈창투 총재 등이 참석해 양국 간 녹색 산업의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핵심사업인 '한중녹색과기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SK 에너지, 포스코파워, 현대.기아자동차, LG 화학, CJ, 유니슨 등 한국의 대표적 녹색기업과 회계.컨설팅업체 KPMG의 경영진이 참석해 각사의 녹색사업 현황과 중국 진출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녹색 코리아타운은 쑤저우 공업원구 웨이팅진에 대지면적 17만 2천 842㎡, 총 면적 26만 4천 470㎡ 규모로 추진되며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녹색

주거, 생활공간 등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복합 지구다.

코리아타운의 핵심시설이 될 '한중녹색과기원'은 한중 녹색기업의 기술 협력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한국과 중국 및 구미 녹색경영기업의 개별 연구개발(R&D 센터) 클러스터, 한중녹색창업센터, 전시관 및 녹색 미술관 등 3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부 역할을 하는 '본사(總部) 기지형 시설'에는 총 8개동 건물에 한국 기업 5개, 중국 기업 1개, 다국적 기업 1개, 한중 연합 연구기관 1개 등 양국 녹색 대기업이 연구개발(R&D)과 상품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공간이 조성된다.

양국의 녹색 벤처 기업들을 위한 R&D 및 육성 거점인 '창업센터'에는 한국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 법률, 컨설팅 등 인프라와 한국기술거래소, 상하이 기술거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최신 녹색 상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장 & 컨벤션 센터'에서는 각종 자료와 기업 홍보물의 공동 전시, 설명회 등이 이뤄지고, 친환경 재료나 친환경 테마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녹색 미술관 & 조각 공원'도 들어선다.

(주)CKT와 칭화대학기업집단, 베이징 셴인신(深銀信)투자집단은 쑤저우 이외에도 베이징, 칭다오 등에서도 대규모 코리아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주)CKT 관계자는 "녹색산업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기술 선진국인 중국의 기업과 구체적인 합작에 참여하려는 한국 기업의 의지가 강하다"며

"녹색산업은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합작은

중국진출의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종편집 : 2010-08-18 10:11